

# 사역에 부름받은 여성들

## 연합감리교회 6과 성경 공부

부록



저자

딜리아 햄버슨, 기독교학 종교 교육자  
카밤바 키보코 목사, 성서학자 (박사)  
레이시 워너 목사, 역사학자 (박사)  
M. 린 스캇 목사, 정리/편집

발행처

연합감리교회

총회여권신장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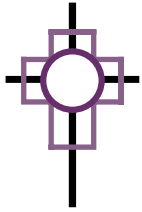
협찬  
연합감리교회

총회고등교육사역부

번역: 박찬경 (Chan Gillham)



# 사역에 부름 받은 여성들



# 사역에 부름받은 여성들

연합감리교회 6과 성경 공부

## 부록

표시된 곳을 제외하고는 NRSV 성경을 사용함



부록 1: 역사적 연대기	3
부록 2: 웹사이트 링크	11
부록 3: 1956년도 총회	12
부록 4: 참고 문헌	16

# 사역에 부름 받은 여성들

## 제 1과

### 역사적 연대기

(연대기를 보면 우리 여성들의 역사가 연합감리교회와 그 전 교단들을 합쳐서 50년 이상인 것을 알 수 있다.)

#### c. 1770

미국에서 최초로 여성이 속회 지도자로 임명되었다.

#### 1764

##### 메리 보산켓 (1739-1815)

보산켓은 당시 독신 여성들은 설 자리가 없었던 초기 감리교회 상황을 극복하고, 양육과 설교를 통해 지도자적인 역할을 했다.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사역을 주셨고, 내가 신실하면 축복을 받을것을 믿었습니다.”

“종종 곁으로나 속으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됐다 싶을때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초기의 기독교인들 처럼, 같은 한 성령을 믿고 그들이 소유한 것이 자기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절실히 바랬습니다.” (귀부인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 보낸 서신, 런던, 1764)

#### 1817

여성은 권면하고 기도 모임을 가질 수 있었으나 설교권은 거부되었다.

#### 19세기 초

레벡카 잭슨(1795-1871)

“1835년, 나는 서부에 있었습니다. . . 온통 박해가 맹렬했습니다. 감리교 목사들은 재단이사들에게 내가 교회든 교인의 집에서든 설교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내 설교를 들으러 가서는 않된다고하며, 만일 가면, 교회에서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이 끔찍한 핍박이 오히려 내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교인들이 그들의 집에서 내가 설교하는것을 두려워하면서도 내 말을 듣고 싶어한다고 했더니, 어떤 사악하고 술주정뱅이인 남자가 문을 열고 ‘내집에 와서 설교하라고 해, 나는 교회에 소속되지도 않았으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내게 전했어요. 나는 그 집에 갔습니다.집안에 사람이 가득찼고, 집 주변은 물론 양쪽 길도 사람으로 찼습니다. 이때에 나의 혼과 몸과 영혼이 터질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혼자였습니다, 나의 문제를 고할곳은 주님 뿐이었습니다. 내가 말씀을 전달하려 일어섰을 때, 나는 낮은 담장 위, 길가, 잔디밭 위에서 내 설교를 들으러 몰려온 사람들을 봤습니다. 나의 마음이 속으로 녹아드는것 같았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주님께 던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 1819

감리감독교회에 선교사와 성서공회가 창립되면서 보조 기관으로 뉴욕 여성 선교회가 만들어졌다.

#### 1841

여성을 위한 최초의 감리교 정기 간행물이 발간되었다.

# 사역에 부름 받은 여성들

## 1847

1849년, 연합형제교회의 화이트 리버 연회에서 채리티 오프럴이라는 여성에게 설교할 것을 추천하고, 그 교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자격증을 주었다.

## 1851

최초로 여성 (리디아 섉스틴, 1799-1894)이 연합형제교회의 총회에서 강단 연설자로 선출되었다.

## 1851

쏘저너 트루스 (1797-1883)

감리교회와 A.M.E.시온 교회에서 활동한 트루스는 여성선거권과 노예제도 반대 운동의 지도자였다. 1851년, 그녀의 유명한 “내가 여자가 아닙니까?” 연설을 하였다.

## 1855

캐서린 부스

“누가 감히 교회 일에서 여성을 밀쳐내거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재능을 겸손히 숨기라고 할것입니까?”

## 1800년대 중반

줄리아 포트 (1823-1900) (1894를 보십시오)

포트는 자신의 목숨과 존엄성의 위협을 무릅쓰고, 흑인 여성으로써 복음을 설교하며 순회여행하였는데, 설교 중에는 여성의 교권과 인종화해를 옹호하였다.

## 1857

연합형제교회는 총회에서 어떤 여성도 설교 할 수 없다는 결의문을 통과시켰다.

## 1866

헬레노어 M. 데이빗슨은 감리개신교에서 집사직을 받은 최초의 여성이다 (북 인디애나 연회 소속).

## 1869

마가렛 뉴튼 밴 콧트, 1830-1914,는 감리감독교회에서 최초로 설교 면허를 받은 여성이다.

## 1869

외국선교 여성회의 창시자들

미국이 최초로 파송한 여자 선교사들과 교사들 중에 릴라바티 썩, 이자벨라 토번과 클라라 스웨인이 포함되어 있다.

릴라바티 썩은 선교사 이자벨라 토번이 인도에 가서 초기에 가르친 학생인데, 인도의 렉나우에 세운 이자벨라 토번 여자대학의 최초의 인도인 여성 교수 (후에 부학장) 이다.

## 1800년대 중반 - 20세기 초반

여성들의 선교사역은 노예제도 반대운동, 그리고 나중에 금주법, 노조 단체 교섭권 및 공정한 노동운동 등 선구적 여성들의 사회운동 참여와 때를 같이 하였다. 20세기의 페미니스트 운동은 이러한 사회운동에 근간을 두고 있다.

# 사역에 부름 받은 여성들

신교활동에 바탕을 둔 여성회들이 감리감독교회, 연합형제교회, 남감리감독교회, 감리개신교, 아프리카 감리감독시온교회, 복음주의 협회 등의 감리교단에서 창설되었다. 목적은 기독교를 (그리고 교육, 아동 양육, 건강 문제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다.

## 1870

아만다 베리 스미스 (1837-1915)

노예로 태어난 스미스는 13 자녀 중 장녀였다. 수모를 당할 수도 있고 안전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하고 복음송을 부르며, 유럽,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여행했다.

“만일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다면, 바로 그날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사람들 위에 오신것 같았습니다. 설교자들은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들은 울면서 ‘아멘!’ ‘주를 찬양!’이라 외쳤습니다. 끝났을때 여러 사람이 내게 와서 악수를 했고, ‘자매님,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어디에서 오셨어요? 우리 교회에 오셨으면 좋겠어요’라고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보세요 자매님, 언제 집으로 가세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세요. 저의 집에 오셨으면 좋겠네요’라고 했습니다. 그런식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형제들이 나를 믿었습니다, 특히 연회에서는 여성의 안수 문제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때 이후로 얼마나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성도 안수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몇몇은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교단에서 안수 못받더라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안수에 만족합니다.”

## 1887

안나 올리버 (1840-1892)

‘저기요, 저는 주님께서 사역을 위해 공부하라고 부르셨다고 믿어요. 어느 신학교도 나를 받아주지 않을것이고 만약 어떤 학교가 나를 받아주었다 해도 나는 성공할 수 없고, 결과, 별로 기분 좋을 수세없는 악명만 높아지고, 적대적인 사람들로 부터는 욕만 먹고 친구들 한테는 따돌림을 당할것이라고 저는 주님께 고했습니다. 순교자가 될 생각은 없었거든요. 나는 모든 이유를 다 찾아서 주님께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부 뒤엎으시고, 나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 1800년대 후반

루시 라이더 마이어 (1849-1922)

대부분의 의과대학이 여성들에게 문을 열어 주지 않았을 당시 의사가 되었다. 디커네스 (Deaconess) 운동을 부활시켰고, 교단의 반대를 무릅쓰고 여성들을 훈련시키고 사역의 기회를 제공했다.

## 1887

안나 하워드 쇼 (1847-1919)

안나 올리버의 뒤를 이어 보스턴 대학교 신학교를 졸업한 두번째 여성이다.

## 1880

여성들 (안나 하워드 쇼와 안나 올리버)이 감리감독교회에서 안수를 거절당했다. 그들이 앤드루스 감독에게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 되겠느냐고 물었다. 앤드루스 감독은 교회를 나가는것 밖에 다른 길이 없다고 했다. 그 후 안나 하워드쇼는 감리개신교회의 뉴욕연회에서 안수를 받았다.

## 1884

감리개신교회의 여성 (안나 하워드 쇼) 안수가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결되었다.

# 사역에 부름 받은 여성들

## 1888

프랜시스 윌라드 (1839-1895)

윌라드는 전국적인 비난을 무릅쓰고 여성의 투표권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이 세상을 위한 사역에 필요한 훈련을 받고 그들의 재능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옹호했다. 소속 연회에서 1888년도 평신도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는데, 여자라는 이유로 입장이 거부되었다.

## 1889

1889년 5월에 열린 연합형제교회의 총회에서, 중부일리노이 연회의 여성들이 제출한 청원에 입각해 여성 목회 면허와 안수를 인준하였다. 두명의 여성 (엘라 니스윙거, 매기 엘리엇트)이 복음을 설교할 수 있는 면허를 받았고, 엘라 니스윙거는 안수를 받았다.

연회 회의록은 1889년 9월 11일 “미스 엘라 니스윙거와 미세스 매기 엘리엇트가 복음을 설교할 수 있는 면허를 받았다”고 적혀있다. 이틀 후, 안수위원회는 “교리에 따름에 있어 건전하고 명백하며’ 그리고 “교회의 교리에 화합”한다는 이유로 니스윙거를 추천했고, 그녀는 “파송목회자로 영입”되었다.

이 연회를 주재한 E.B. 케파트 감독은 “종교 망원경” (1889.11월 20일자)지에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두명의 총명한 기독 여성들이 연회 기간 중에 설교 면허를 받았고, 교단의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연회의 장로 목사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새 천년의 동이 트는것인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것입니다.”

여성 장로 목사가 감리개신교회에서 안수받았다.

## 1800년대 말

벨 해리스 베넷트 (1852-1922)

베넷트는 교단의 반대를 무릅쓰고 여성들의 사역의 기회 뿐 아니라, 남부에서 인종간의 파트너십을 장려했다. 그녀의 활기찬 노력은 남감리교회에서 여성에게 온전한 평신도의 자격을 부여받는것을 가능케했고, 젊은 여성 선교사를 배출하는 학교를 공동 설립했다 (현재, 내슈빌의 스카릿 베넷센터).

## 1892

세명의 여성 평신도와 한명의 여성 목회자 대의원이 감리개신교회의 총회에서 입장을 거부 당했다.

## 1892

유지니아 세인트 존

“여러분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부터 오는 징조를 보시면서, 교회를 새워나가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의 편견으로 힘들게 하시겠습니까?...미래의 중요한 질문은 죄의 세력을 이길 힘이 있느냐는것입니다. 말씀드리자면, 만일 교회가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바른 마음을 가진 남성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울 수 있는 모든 여성이 필요합니다.”

## 1892

다음 총회들에서 처음으로 여성 대의원들에게 입장하여 앉을 자리를 마련해 주다: 1892년 감리감독교회의 총회, 1893년 그리스도 연합형제 교회 총회, 1904년 감리감독교회 (여성의 평신도 권한 또한 허용됨), 1922년 남 감리감독교회 총회.

# 사역에 부름 받은 여성들

## 1894

아프리카 감리감독 시온 교회에서 최초로 여성 (줄리아 A.J. 포트)이 집사목사 안수를 받음 (1800년대 중반 참조)

새 천년이 정말 동이 튼것일까? 동이 트는 것이 시간의 한 때가 아니라 긴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 20세기가 되기 전에, 교회는 두개의 이정표를 지나갔다. 1894년, 줄리아 A.J. 포트가 아프리카 감리감독 시온 교회에서 집사목사 안수 받은 첫 여성이 되었다. 같은 해 9월 7일, 그리스도 연합형제교회의 오하이오 주의 마이아미 연회에서 사라 디키에게 안수 허가가 났는데, 실제로 안수 받은 것은 그녀가 참석한 1986년 9월 6일 총회 때였다 (2000년도 총회 뉴스 기사에서)

## 1896

여성 (사라 디키)이 그리스도 연합형제교회 마이아미 연회에서 안수 받았다.

## 1901

첫 여성 목회자 대의원이 그리스도 연합형제교회 총회에 참석하였다.

## 1904

여성들이 평신도의 권한을 받고 감리감독교회 총회에 참석하였다.

## 1900년대 초

메리 맥리어드 벳툼 (1875-1955)

벳툼 박사는 빈곤해지는 것을 무릅쓰고 학교를 세워, 젊은 흑인여성들을 교육하고, 이 세상에서의 사역을 권장하며 지도력 개발을 추구했다. 현재 플로리다 데이тона 비치에 있는 연합감리교회 벳툼-쿡맨 대학이다. 여러 대통령의 고문이었고 인종 평등의 챔피언이었다.

## 1910

여성의 평신도 권한이 남감리감독교회의 총회에서 거부되었다.  
여성이 1922년이 되어서야 참석하게 되었다.

## 1913

패니 잭슨 카핀

“내가 오벌린 대학에 다닐때 한번도 일어나 발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아프리카 사람들의 명예를 내 어깨에 지고 있는것 같았습니다. 내가 만약 실패하면 내가 유색인종이라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이 말할 것을 알았습니다. ... 노예제도는 우리를 빈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둡고 악질적인 그림자는 그 악순환을 계속되게 만듭니다. ...”

## 1920

감리감독교회는정식으로 여성들에게 평신도 설교자 면허 (local preacher's licence)를 주었다, 안수사역의 첫 발자국이였다.

1920년은감리감독교회와 여성의 재능을 인정하는것에 큰 발전을 가져온 해였다. 그 해에 미국이 19번째 개정안인 여성의 투표권을 인준했을 뿐 아니라, 감리감독 교회의 장정은 정식으로 여성에게 평신도 설교자 면허를 주기로 했는데, 이것은 안수사역의 첫 발자국이였다. (2000년도 총회 뉴스 기사에서)

그리고 1924년 변화가 왔다.

# 사역에 부름 받은 여성들

## 1924

감리감독교회의 여성들은 “지역” 안수 (“local” ordination)라고 하는 제한된 권한을 받았다.

## 1927

플로렌스 S. 티드

“예수그리스도의 좋은 목회자란 먼저 주 안에서 안수를 받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모든 곳의 모두에게 설교한다는 것을 우리는 동의할 것입니다. 30년간 이 구석 저 구석, 이땅 저땅의 여러 강단에서 설교한 결과, 내가 본것은 ‘사람들이 원하는것’은 심미적이거나 두뇌를 움직이는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며 부딪치는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받는 것입니다.”

## 1938

셀마 스티븐스

셀마 스티븐스는 미시시피에서 태어난 유럽계 미국인(1936-1976, 감리교 여성회 회장)으로서 감리교회의 전신인 교단에서 활동한 백인 민권운동가였다. 스티븐스는 이 해에 전통적으로 흑인대학인 조지아의 페인대학에서 역사상 최초로 흑인, 백인 여성이 모두 참석한 감리여성회 집회를 조직했다. 주된 주제는 미 남부의 인종분리주의 철폐에 관한 토론이었다. 분리주의를 철폐하는 대신 둘로 갈라진 후 5년만에 열린 1944년 총회에서, 이 여성은 총회의 위원회 모임들을 흑인 대의원들과 백인 대의원이 모두 환영받는 장소로 옮기려 했으나 실패했다.

## 1939

북미주에서 처음으로 신학교의 신학교수가 된 조지아 하크네스 박사는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안수를 포함한 여성들의 교권을 옹호하였다. 그녀는 대담하고 선지자적인 사회정의의 대변자였다.

## 1944

감리교회 선교회의 여성국은 여성지위위원회를 조직했다.

## 1946

새로 조직된 복음주의 연합형제교회 (그리스도 연합형제교회와 복음주의 교회의 합병)는 여성의 안수를 거부하였다. 여성안수 역사 상 한 발짝 후퇴였다. 몇발짝 앞으로 나간 다음에 때로는 한발짝 뒤로 물러나게될 때가 있다. 1946년,

그리스도 연합형제교회와 복음주의교회가 합병되어 복음주의 연합 형제교회가 되었을때 여성들의 안수는 거부되었다. (2000년도 총회 뉴스 기사에서)

## 1953

마가렛 헨릭슨

“더 많은 가족들을 알아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게 되가면서, 할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공부, 명상 그리고 창의적인 일을 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어졌습니다. . . 진정한 공부를 할 시간은 거의 없는데, 해야할 집안 일은 참 많았습니다. 아무리 안하려해도, 바다도 쓸거나 닦아야 했고, 유리창은 너무도 뿌옇게 되가고 있었고, 다림질과 수선 등의 일들도 많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여자)목사가 되기로 했는데, 내가 그 목사의 아내의 역할도 해야하는 것이었습니다.”

## 1956

감리교회의 총회는 “여성이 모든 사역을 인정받을 수 있고 연회의 정회원이 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온전한 권리를 인정한 것입니다. 모드 카이스터 젠슨이 중앙 펜실바니아 연회가 5월 18일 열렸을때, 그 첫 권리를 인정받았습니다. 다른 연회들도 모임을 갖으면서, 그 해에 27명의 여성이 온전한 권리를 받았습니다. (부록 4: 1956년 총회 참조)



# 사역에 부름 받은 여성들

## 1967

마가렛 헨릭슨이 최초의 여성 감리사로 임명되다.

## 1968

감리교회와 복음주의 연합형제교회가 합쳐지면서 연합감리교회가 만들어졌다. 새 교단은 여성들에게 모든 교역자의 권리를 인정할 것을 확인했다.

“1968년, 감리교회와 복음주의 연합형제교회가 결합하여 연합감리교회로 결성되면서, 여성목회자의 온전한 권리인정이

재확인 되었다.” (2000 총회 뉴스 기사에서)

## 1968

여성국 (현재,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와 동역)이 교단에 교회 전체의 역사에 여성이 관여된 것을 기록하기 위한 연구 위원회를 조직할것을 요청했다.

## 1972

연합감리교회의 총회는 교단의 모든 차원에서 여성차별을 밝혀낼 위원회를 조직하고 자금을 조달했다.

## 1976

총회가 여성신장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창립함으로써 1972년도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행동에 옮겼다.

## 1976

10명의 여성목회자가 연합감리교회 총회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

## 1980년대

흑인이며 여성국 국장이던 테레사 후버가 가부장적인 선교사 제도, 개발 도상국에서의 미국/서양식 체제를 도입하는 관행,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하는 투자 등을 비난했다.

## 1980

중북부 지역총회는 마조리 매튜즈 (1916-1986) 목사님을 (49세때 장로목사 안수를 받음) 연합감리교회 최초의 여성 감독으로 선출하고 위스칸신연회 주재 감독으로 파송하였다.

## 1983

앨리스 윤 채

“나는 여성들 삶의 경험의 다양성과 복합성이 지배 과정에 깊은 연관이 있으며, 모든 불평등의 체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여성들의 다른 관점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그 다른것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지는 특권과 권력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것, 이것이 여성들을 갈라놓는 주된 이유입니다.”

## 1983

셀마 스티븐스 (1936-1976 감리교 여성교회 회장)

“여러분의 뿌리는 여러가지이고, 여러가지 빛같이고, 여러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 .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안에서 여러분은 여성과 남성입니다. 온전히 동등하고 온전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값을 따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살아서 섬기고,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모든 인류에게 정의로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 사역에 부름 받은 여성들

## 1984

서부 지역총회는 흑인인 리온틴 T.C. 켈리 목사님을 연합감리교회의 최초의 여성 유색인종 감독으로 선출하고 캘리포니아-네바다 연회에 파송하였다.

## 1993

캐롤 카트라이트

“지금 내가 느끼는것은 오직 흥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도달할 곳에 아직 와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여정을 이어가고 있고, 계속 교차로가 나옵니다, 하지만 나는 내가 결국에 헌신해야 하는 그 정점을 제시해 주시기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면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이기 바랍니다. ... 나는 아직도 영적으로 내가 도달해야 할 곳을 향해가고 있는데, 그 여정이 즐겁습니다.”

## 1996

최초로 여성 감독 (주디스 크레이그)이 총회에서 감독설교를 했다.

“여성목회자들이 1976년도 총회 대의원으로 선출되고 20년 후, 처음으로 여성 감독이 1996년 총회에서 감독 설교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주디스 크레이그, 우리의 두번째 여성 감독이 4월 16일 설교를 하였습니다.” (2000 총회 뉴스 기사)

미국의 동남부 지역총회가 그들의 최초의 여성 감독을 선출 (샬린 캐머러)하였다. 5개의 모든 지역총회에 이제 여성 감독들이 선출되었다.

## 2000

총회는 교단의 모든 여성들이 모든 사역에 온전히 참여할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하고, 그 목표를 위해 비전을 세우다.

## 2001

방글라데시 출신 선교사인 클라라 비스와스가 캄보디아의 프놈펜에서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해 사역하다. 교단을 통해서 사역하는 새로운 물결의 선교사들 중 한 사람이다.

## 2004

서부 지역총회가 미넬바 카르카노 목사님을 교단의 첫 남미 출신 여자감독으로 선출했다. 전부 여섯명의 여자 감독이 선출되었는데 한 해에 선출된 여성 감독의 숫자로는 가장 많았다.

## 2005

로즈마리 베너 목사님이 감독으로 선출되어 독일 주재 감독으로 파송되었다. 미국 밖에서 선출된 최초의 여성 감독이었다.

## 2006

16명의 현역 여성 감독과 4명의 은퇴 여성 감독이 연합감리교회를 섬기고 있다.

# 사역에 부름 받은 여성들

## 제 2과

### 웹사이트 링크

#### 총회여권신장위원회 (GCSRW)

[www.gcsr.org](http://www.gcsr.org)

연합감리교회의 여성에 관련된 자료를 원하시면 이 웹사이트를 이용하십시오.

총회여권신장위원회(GCSRW)의 선교사명은 “연합감리교회에서 여성이 교단 전체의 모든 사역에 온전하고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전하는 것이며, 이 사명에는 여성안수, 정책결정의 동등한 참여, 그리고 예수그리스도가 구원, 해방, 제자화, 교회와 사회의 사역에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부르셨음을 인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웹사이트의 “GCSRW에 대해서”)

#### 총회 교회역사보존 위원회 (GCAH)

[www.gcah.org](http://www.gcah.org)

연합감리교회의 역사를 알고 싶으실때 이 웹사이트를 이용하십시오.

GCAH의 목적은 “연합감리교회의 역사적인 관심을 고무하고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합감리교회에 관련된 역사적인 기록과 자료를 보존하고 일반대중및 학문적인 것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존도서관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홈페이지)

#### 총회 세계선교부 (GBGM)

[www.umcmmission.org](http://www.umcmmission.org)

이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세계적 사역에 관한 정보를 얻으십시오. (“Our Work”로 가서서 “Women and Children”을 클릭하십시오.)

여선교회를 돕는 여성국에 관련된 자료를 이 웹사이트에서 얻으십시오. (“Get Connected”로 가서서 “United Methodist Women”을 클릭하십시오.)

총회세계선교부는 연합감리교단, 각 연회, 선교연회, 그리고 각 개체교회의 세계적인 선교기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과 화해의 선물을 전달하는 기쁜 소식인 복음은 선교에 권능을 부여합니다.

제자를 만들고, 교회를 일으키고, 고통을 덜어주고, 정의, 자유와 평화를 증진시키는것이 세계선교부의 선교 목적입니다. (웹사이트에서)

#### 총회 고등교육사역부 (GBHEM)

[www.gbhem.org](http://www.gbhem.org)

연합감리교단의 여성목회자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면 이 웹사이트를 이용하십시오.

“총회고등교육사역부는 연합감리교단에서 평신도나 목회자 기독교 지도자들을 새롭게 발굴하고, 준비시키고, 양육, 교육 시키고 돕는것을 이끌어가고, 실행하는 기관으로서, 예수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 세계를 변화 시키고자 합니다. (웹사이트의 “선교 사명”에서)

# 사역에 부름 받은 여성들

## 제 3과

### 1956년도 총회

이 자료를 낭독극으로 사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교회 내의 여성들에게 온전한 권리를 인정하자는 투표에 대한 1956년도 총회에서의 진행 상황으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낭독자 1	(남자 혹은 여자)
낭독자 2	(남자 혹은 여자)
마빈 스투어트	(남자)
듀이 워르	(남자)
알렌 B. 라이스	(남자)
헨리 라일 램딘	(남자)
조 E. 바우어즈	(남자)
에버릿 W. 파머	(남자)
C. 앤더슨 데이비스	(남자)
린 J. 레드클리프	(남자)
미세스 헨리 D. 에브너	(여자)
미세스 에드윈 S. 앤더슨	(여자)
제임즈 S. 첵	(남자)
린 H. 코슨	(남자)
조지아 하크네스 박사	(여자)

#### 낭독자 1:

여성들은 1956년 이전에 평신도 목회자나 개체교회 장로로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개체교회의 장로로서 여성들이 목회자로 사역할 수는 있었으나, 연회의 회원은 될 수 없었습니다. 회원권도 없고 사역자의 온전한 권리 없었기에, 개체교회 장로 여성은 파송의 보장을 받을 수 없었고 연회때 목회자에 관한 사항에 투표할 수 없었습니다.

1956년 총회는“감리교회가 여성에게 온전한 권리를 허락하는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어느 시대이고, 교회가 당면한 도전은 하나님의 뜻을 깊이 경청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1956년 5월7일의 회의 때 다음과 같은 많은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만일 온전한 권리가 인정되면 여성을 개체교회에 파송하는것이 가능할가?”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면서, 실제로 행하지 않아도 되는것일가?”

“온전한 권리를 미혼 여성에게만 주어야하나? 기혼 여성은 가정의 책임이 있으니까.”

“여성을 파송하는것은 감독과 캐비닛의 책임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개체교회가 여성을 받아들이는가에 달렸나?”

“복음은 이것에 대해 우리에게 무어라 말하고 있나?”

#### 낭독자 2:

들으세요. ... 1956년도 총회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기울여 보세요.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듣고, 그 뜻을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실천합니까?”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봅니다.

#### 남자 목소리:

캘리포니아-네바다 연회서 온 마빈 스투어트 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결정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칙적인 것으로 여성에게 온전한 권리를 주는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전체 혹은 대부분이 이를 원칙적으로 반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것이겠지요. 원칙을 가로막고 있는 이 실제적인 어려움들을 우리는 극복할 수 없겠습니까?”(520 페이지)

# 사역에 부름 받은 여성들

**남자 목소리:** 일리노이 연회의 듀이 뮌어입니다. “설교의 능력과 교회에서의 지도력은 어느 모로 봐도 성별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정된 사실이지요. 어떤 여성들이 훌륭하고 뛰어난 목회를 해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설교 능력, 지도력을 행사하는 것, 이런 것은 여성들에게 온전한 권리를 주자는 실제의 문제와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이러한 청원이 안수위원회의 위원들의 판단에 의해 총회에 올라오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특권을 한 성별에게는 주고 다른 성별에게는 거부할 수 없다는 기본 이론에 의한 것입니다. 그 고상한 생각에는 모두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법의 행정적인 현실적 문제에 부딪칩니다.”

“파송제도 하에서는 연회의 모든 회원은 어떤 교회가 그 목사님을 원하던 원치않든 개체 교회나 연회의 특별 파송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어떤 남자 목사님들을 파송할때에 문제가 있기도 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교회도, ‘아니요, 남자 목사님은 정말 안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교회는 본 적이 없습니다[웃음]. 그러나 훌륭한 여자 목사님을 파송하려 할때에... ‘우리는 여자 목사님은 안되겠습니다’라는 대답은 자주 듣습니다.”

“실제에 있어서, 그러한 법률을 제정하자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여성안수 입법화 뿐만 아니라 보다 구체적으로 본인들 교회에서 여성 순회 설교자를 받을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 여성을 안수하지 않는 현행법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선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522 페이지)

**남자 목소리:** 서북부 인디아나 연회, 알렌 B. 라이스입니다. “저는 감리사입니다. ... 차별에 반대합니다. 어떤 종류의 차별이고 모두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을 파송할 수 있는나 없느냐하는 논란이 많고 힘든 문제를 캐비넷에게 알아서 해결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연회의 캐비넷도 총회의 결정 없이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것입니다.”

**남자 목소리:** 뉴욕연회, 헨리 라일 램딘입니다. “여성을 연회의 정회원으로 받느냐 하는 토론이 자꾸 행정적인 수준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논쟁의 중심이, 황량한 지역에서 목회하던 아무개 여자목사를 넉넉한 지역으로 가게하려 하는 감리사가 당면할 수 있는 당혹함에 맞추고 있는것 같습니다. ‘불쌍한 감리사를 딱하게 여기는것’이 지금까지 보여진 이 논쟁의 결론이고 실제인것같습니다.”

“... 주후 1956년인 오늘날, 어떠한 여성도, 아무리 교육적으로 자격이 있고, 재능과 은혜로움과 훌륭하다해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없고, 우리가 연회라고 부르는 감리교단 내에서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것입니까?”

“자격과 상관없이 그 어느 여성도 연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질문입니다.” (524 페이지)

**남자 목소리:** 오클라호마 연회 죠 E. 바워즈입니다. “이 일에 대한 말씀의 많은 부분이 궁지에 처한 감리사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감리사에 촛점이 맞춰질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개체 교회에 촛점을 맞춰야 합니다. 제 생각에 여기서 확실히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것을 지지한다면, 개체교회가 여성목회자의 파송을 받아들이겠다는것을 의미함을 알고서 해야 합니다.” (526쪽)

**남자 목소리:** 남가주-아리조나 연회, 에버릿 W. 파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할 필요가 있고 언젠가는 해야합니다. 지금이야 말로 이를 은혜롭게 할 수 있는 바로 그때 입니다.” (526 페이지)

**남독자 2:** 이 회의 도중, 미혼여성과 미망인에게는 온전한 목회자의 권리를 주고, 기혼 여성에게는 같은 특권을 주지 말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남자 목소리:** 동부 테네시 연회, C. 앤더슨 데이비스입니다. “우리 연회에서 설교하시는 다섯명의 여성 중, 네명이 기혼입니다. 이 기혼자 네명은 아이도 없고, 집안일의 책임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혼이면서 일을 하는 여성들 보다 기혼여성이 이 사역을 더 잘해낼 수 있는것 같습니다.” (525 쪽)

# 사역에 부름 받은 여성들

**남자 목소리:** 오하이오 연회, 린 J. 래드클리프입니다. “회장님, 원칙은 참 훌륭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많은 개정안과 회의 의결 상황 속에 길을 잃어서는 안됩니다. 원칙은, 예수그리스도께서 여성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성에게 주는 똑같은 특권과 권리를 주시냐는 것입니다.” (526 페이지)

**남자 목소리:** 동부 테네시 연회, C. 앤더슨 데이비스입니다. “감독님, 그리고 총회 대의원 여러분, 저는 우리가 여성을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남자들이 참정권, 투표권을 획득하려 했을 때 만연했던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여성들을 특히 이 일에서 차별한다면, 모든 분야에서 여성들이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원칙에 위배됩니다. 의학 분야, 법조계, 그리고 흡사한 분야에 진출하는 여성들이 자리를 뺏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역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리라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많은 위엄과 보탬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감리사들이나 감독이 때로는 남자 목회자를 파송하는데 애먹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자목사를 파송하는 것이 그것보다 더 힘들것 같지는 않은데요. [웃음]” (525 페이지)

**낭독자 2:** 대화의 한참 후에 처음으로 여성이 현안에 대해 발언했다. 여성에게 온전한 권리를 주는 것에 반대하는 발언이었지만, 몇가지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다.

**여자 목소리:** 뉴저지 연회, 미세스 헨리 D. 에브너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투표하기전에...우리의 ‘장정’을 바꾸기 전에 [우리는] 세가지 중요한 질문에 예 라고 답해야합니다. 진심을 다해 제 의견을 전달합니다.

우선 먼저, 내가 찬성하는 투표를 하면, 감리사께 ‘네, 여자목사님을 보내주세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번째로, 목사님이나 남자 평신도들이나, ‘나는 여자 감리사 밑에서 기꺼이 사역하겠다’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통과되면, 차별을 하지 않을거니까요. [박수]”

“더 나아가서, 감독님, 저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는 여성감독을 선출할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과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말을 믿으세요. 과장이 아닙니다. 여성들의 파워를 아시지 않습니까. 감독님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528 페이지)

낭독자 2: 두번째 발표한 여성은 온전한 권리에 찬성했습니다.

**여자 목소리:** 뉴잉글랜드 연회, 미세스 에드윈 S. 앤더슨 입니다. “여성들이 목회사역의 후보자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졸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남자 목회자가 하는 모든 예배를

집전할것은 허용 받았고, 연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각 여성 목회자는 평신도 대표와 함께 참석합니다. 평신도는 회의장의 안쪽에 앉고 발언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목회자는 발언권이 없습니다.”

“여성 연회회원에게 파송이 보장된다’라는 의견을 반대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나 여자나 동등한 기회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면, 파송보장이 왜 남자와 여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면 안된다는 것입니까?” (528쪽)

“여성에게 온전한 목회자의 권리를 인정한 교단은 그 결과에 크게 만족해왔습니다. 감리교회는 언제나 변화에 잘 적응 해왔고,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사역자 회원들에게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주는 본을 보여야 할것입니다.” (528-529 페이지)

**낭독자 2:** 대화가 거의 끝에 가까왔습니다.

**남자 목소리:** 네브래스카연회, 제임스 S. 첩입니다. “회장님, 그리고 총회의 대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투표할것인가 하는 결정적인 단계에 도달해 있음을 알고있습니다. 핵심은, 이전에는 적극적으로 목회의 길로 들어오지 못한다고 생각하던 여성들을 목회자로 영입할 수 있는 대담하고 새로운 기회를 잘 활용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529 페이지)

# 사역에 부름 받은 여성들

**낭독자 2:** 사회를 보시는 감독, 킹 감독님이 거수로써 투표를 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상정된 법안은 기립투표나 투표지를 사용할 필요없이 통과되었습니다.

서로 은혜로운 인사를 나누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대화가 들렸습니다

**남자 목소리:** 뉴저지연회, 린 H. 코슨입니다. “회장님, 이 총회에서 여성에게 온전한 목회의 권리가 인정되는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룹의 한 사람에게 오늘은 특별한 승리이며 중요한 날입니다.

조지아 하크네스 박사를 소개합니다.” [박수]

“조지아 하크네스 박사에게 예를 표하십시다. [관중이 기립 박수]” (534 페이지)

**여자 목소리:** 조지아 하크네스 박사입니다. “훌륭한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왜 아무 말도 안했는가를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게 하는것이 더 나을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534 페이지)

---

낭독극은 2006년 위스칸신연회의 린 스캇 목사님이 집필하였다. 인용문은 1956년 총회의 Daily Christian Advocate (DCA - 총회 기간 중 매일 발간되는 회의록)에서 발췌되었다. 페이지 번호는 괄호 안에 있다. DCA의 이 부분의 복사본을 원하면 연합감리교회 총회 교회역사보존위원회 웹사이트 ([www.gcch.org](http://www.gcch.org))를 이용하면 된다.

# 사역에 부름 받은 여성들

## 제 4과

### 참고 문헌 (주석 포함)

#### 성서

앤더슨, 게리 A. 완벽한 창세기: 유대교와 기독교의 상상 안에서의 아담과 이브 (루이빌:웨스트민스터 존 닉스, 2001)

이 책에서, 앤더슨은 유대인들은 아담과 이브를 토라와 약속의 땅에 비추어 이해했는데, 기독교는 그리스도와 마리아에 비추어 이해한다고 했다.

바, 제임스. “한 사람, 아니면 모든 인류?” 아탈리아 브레너 & J.W. 반 헨텐 (편집), 성서의 인물 재생하기:1997년 5월 12-13일 암스테르담의 NOSTER (고등 신학교)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 (라이더도프, 네델란드, 1999, 3-21 페이지)

이 글에서 바는 히브리어 ‘아담’이 주로 남자의 개념인데 때로는 여자가 남자와 함께 있을 때는 여자도 포함할 수 있다고 주장.

코퓌, 캐시. 복음의 숨겨진 여성들 (뉴욕: 크로스로드, 1997). ISBN 0-8245-1561-7.

이 책에서 캐시 코퓌는 복음서에 이름이 나오지 않은 여인들을 여러명 살펴본다. 그녀는 이 여인들을 독자로 하여금 전과 전혀 다르게 볼 수 있게 한다.

클라인즈, 데이비드 J.A. “아담, 히브리어로 ‘인간, 인간성’ 제임즈 바에 답한다,” 베투스 테스타멘3 (2003): 297-310.

이 글에서 클라인즈는 바의 논쟁에 도전한다. 그는 ‘아담’이라는 말에는 성별이 없다고 주장한다. 인류 혹은 성별에 관련 없는 개인을 지칭한다고 한다.

프라이어-켄스키, 틱바. “첫 창조 이야기 속의 여자 (와 남자),” 성서 속의 여인들, 175.

이 글에서, 틱바는 첫 창조 이야기를 면밀히 읽고서, 히브리어 ‘아담’은 남성과 여성들 둘다 포함하는 단어로 이해되어야한다고 결론내린다.

르빈, 에이미-질. “가나안 여인,” 성서 속의 여인들에서 (캐롤 마이어즈, 토니 크레이븐 & 로스 S. 크레이머 편집; 그랜드 래피즈, 미시간: 윌리엄 E. 이어드먼즈, 2000), 413 페이지

가나안 여인의 딸에 대한 이 짧은 평에서, 르빈은 부모의 증보에 초점을 맞춘다.

마이어즈, 캐롤. “이브,” 성서의 여인들 에서, 81 페이지

이 짧은 글에서, 마이어즈는 출산과 남성 지배에 관련된 히브리 단어들을 재 조사한다. 그녀는 “남성이 여성을 지배한다”는 의미가 성적인 지배라는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의 주장과 의견을 같이한다.

라쉬코, 일로나 N. 어두운곳 위에:영국 르네상스 성경번역의 반유대주의와 성 차별. (성경과 문학 씨리즈 28; 셰필드: 아몬드 출판, 1990). ISBN 1850752516.

이 책은 어떻게 반유대주의와 성차별이 영국 르네상스시대의 성경 번역에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훌륭한 연구 서적이다. 라쉬코는 히브리 원본과 영어 번역의 시적인 차이에는 정치적인면이 있음을 보여준다.



# 사역에 부름 받은 여성들

트리블, 필리스. “이브와 아담: 창세기 2-3장을 다시 읽다” 여성의 영성 떠오르다:페미니스트 관점의 종교 (편집: 주디스 플라스코 & 캐롤 E. 크라이스트; 샌프란시스코: 하퍼 & 로우, 1979).

이 글에서 트리블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구조를 연구하고, 남자가 먼저 창조되어지고 여자가 끝에 만들어졌다는 것은 원의 구조를 이루는데, 이는 남녀의 평행 관계를 나타낸다고 한다. 히브리 문학에서는 글의 맨 앞과 끝에 주가 되는 부분을 삽입하는 포괄구조가 흔히 보인다.

“간단한 몇자도 아니고, 제목도 아닌: 창세기 2-3장, 20년 후” 이브와 아담: 유대인, 기독교인, 무슬림의 창세기와 성별에 관한 글 (편집자: 크리스틴 E. 크반, 린다 스킨얼링, 발레리 H. 지글러; 블루밍턴: 인디애나 대학교, 1999), 439 페이지.

이 글에서, 트리블은 하'아담은 성적으로 구별이 되어있지 않은 존재라고 주장한다.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남성과 여성이 합쳐진 존재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 역사

커런트, 안젤라. 장벽을 부수다: 어느 아프리카-아메리칸 가정과 감리교 이야기. 내슈빌: 애빙턴 출판부, 2001. ISBN:0687070368

뿌리(Roots)가 미국에서의 아프리카-아메리칸의 이야기를 말해 주었듯이, 장벽을 부수다 (Breaking the Barriers)는 연합감리교 안에서의 아프리카-아메리칸의 경험을 보여준다. 신앙의 중요성과 교단의 중요역할을 한 인물들의 삶과 사역에 교회와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알려준다.

1984년 7월 19일, 리온틴 커런트 켈리는 연합감리교회의 감독으로 선출되었다. 주류 교단에서 최초로 선출된 아프리카-아메리칸 여성 감독이었다. 장벽을 부수다는 그녀의 여정과 그 역사적인 업적을 자세하게 얘기해 준다.

크래크넬, 케네스 & 화이트, 수잔 J. 세계 감리교 개론. 케임브리지 대학교 출판부, 2005. ISBN: 052152170X

현재 세계적으로 감리교 신자가 7천 5백만명이 넘는데, 이 책은 감리교회를 세계적인 종교 전통으로 취급하면서, 풍부한 다양성과 모든 감리교인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핵심적 믿음과 태도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감리교적 생활 방식에 대한 소개와, 어떻게 영국과 미국의 감리교가 서로 다른 문화적 뿌리를 가진 채 성장했는가를 보여준다. 요한과 찰스 웨슬리의 계속이어지는 전통 외에 세계 감리교 개론은 감리교가 교회일치운동과 타종교간의 관계에 끊임없이 공헌 하는 점을 알려준다. 그 분석은 풍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음으로 앞으로의 더 많은 연구가 장려된다. (콕스베리 cokesbury.com)

슈미트, 진 밀러. 넉넉한 은혜: 미국 감리교 여성의 역사 1760-1968. 내슈빌: 애빙턴 출판사, 1999. ISBN: 0687156750

여성의 역사와 미국 종교는 여성의 신앙의 삶 보다는 종교적인 행동에 더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다. 미국의 초기 종교와 영성의 연구는 대개 남자 목사님들의 저널이나 설교에 의존해왔다. 평범한 감리교 여성들의 종교적인 생활을 이해하기 위해 진 밀러 슈미트는 그녀들의 일기, 편지, 영적인 자서전과 감리교 잡지에 실린 그들의 경건한 삶과 성스러운 죽음이 실린 사망 기사를 참고하였다. 이 힘찬 믿음의 이야기들 역시 감리교인들의 역사이다. (Cokesbury.com)

워너, 레이지. 여성의 구원: 복음주의 신학적 이론과 실제의 재 발견. 웨이코, 텍사스: 베일리 대학교 출판부, 2007.

여성의 구원은 무척 필요한, 여성들의 복음주의 신학에 대한 공헌 연구서이다. 1800-1950 사이에 미국에서

목회했던 6명의 개신교 여자목사들의 직접 경험을 통해 이 역사적, 신학적 연구는, 이들이 말로써 선포하는 것 외에도 기독교에서 행해지는 설교자, 심방자, 선교사, 교육자, 운동가 그리고 개혁자의 역할을 했던것을 보여준다. (아마존 Amazon.com)

# 사역에 부름 받은 여성들

## 현대 (1956년 이후의 우리의 삶)

크레이그, 주디스. 이끄는 여성들: 연합감리교회의 첫 여성감독들의 이야기 내슈빌, 애빙턴, 2004.  
ISBN:0687088380

주디스 크레이그 감독이 생존해 있는 연합감리교회의 모든 여성 감독을 인터뷰하여 그 이야기들을 엮은 책이다. 선구자적 역할을 한 감독들의 이야기들을 교회에, 특히 젊은 여성들과 목회에 관심이 있는 여성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한다. 각 감독은 자기의 어린 시절, 교육, 목회 사역에의 부름, 어떻게 지도자로 떠오르게 되었나, 되돌아 볼때 오늘날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준 것이 무엇이었나 하는 점에 대해 말한다. (Cokesbury.com)

호킨즈, 파멜라, 매리언 잭슨, 수잔 W.N. 루아크, 편집, 용감한 영혼; 목회 사역하는 여성들의 목소리. 내슈빌: 다락방, 2005.

이 예배 자료와 연합감리교회 전 지역의 여성목회자들의 개인적인 목상을 모은 이 책은 소명, 헌신과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여성 지도자의 용기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준다.

톰슨, 패트리시아. 용감한 과거 - 대담한 미래: 연합감리교회의 여성목회자 온전한 권리 인정에 이르는 여정 내슈빌: 연합감리교회 총회 고등교육사역부, 2006.

---

2006년은 감리교회에서 1956년 여성 목회자들에게 온전한 권리를 인정한 역사적인 결정을 내린지 50주년을 맞는 해이다. 이 책은 열정과 투쟁과 용기와 희망의 역사적인 여정을 연대별로 기록하고 있다. 톰슨은 1956년 총회 당시 예비 회원 단계에 있었던 19개 연회에서 온 27명의 여성과 감리개신교회에서 장로목사로 시무하고 있던 3명의 여성목회자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또 복음주의 연합형제교회가 1968년 합병하여 연합감리교회가 될때까지 시무했던 여성목회자들의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회나 중앙연회에서 처음으로 온전한 목회자 권리를 받은 280명 이상의 여성목회자들이 본인의 말로 하는 이야기가 이어진다. 미국 내에서 이 이야기는 각 연회와 그 연회의 각가지 민족적 배경을 대표하여 온전한 목회자 권리를 인정 받은 최초의 여성들의 이야기이다. 용감한 과거 - 담대한 미래는 역사적인 책이다. (뒤 겉장)